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44)]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마가복음 15:37-38)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50-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a) 누가복음 23장 45-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i)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영혼이 떠나셨는데)(막 15:37; 마 27:50), 마태가 “다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요 19:30)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하는 두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일곱 가지 말씀(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두 말씀임].

(a) 여기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요 19:30)하는 말씀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인터넛).

(i) 여기서 “구속 사역”이란 “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역을 의미

합니다. 이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거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사역은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인터넷).

- 구속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구속이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인터넷).

(b)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하는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순종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겸허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믿음과 평안을 제시합니다(인터넷).

(i)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인터넷):

-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순종: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며, 그 희생의 완성을 아버지께 맡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성도들에게 죽음의 의미 제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영혼의 안전과 안식: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맡김으로써 안전과 안식을 얻게 되었고, 성도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맡김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ii)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인터넷).

(3)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막 15:38)[누가는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더라”(눅 23:45-46)하고 기록하였음] 또한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마 27:51-53,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의미합니다”(인터넷).

- (i) 자세한 의미는 이렇습니다(인터넷):

- “구약 시대의 제한: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깊은 간격을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대의 시작: 찢어진 휘장은 구약 시대의 모형적인 속죄 제도가 끝났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언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b) 여기서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난 사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며, 그 죽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인터넷).

(i) 자세한 의미는 이렇습니다(인터넷):

- “땅의 흔들림과 바위의 갈라짐: 이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바위가 갈라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 무덤의 열림: 이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 잠자던 성도들의 살아남: 이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ii) 결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c) 여기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마 27:52-5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예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인터넷).

(i) 자세한 설명은 이렇습니다(인터넷):

-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의 열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상징합니다.
- 성도들의 부활: 이어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의 이동과 나타남: 부활한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마가복음 13:9-1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참고: 요한복음 6:48, 57, 58, 새한글 성경).

예수님과 나귀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 밖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자(마가복음 11:1-3, 현대인의 성경)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이 쓰십니다”하고 대답하자 그가 허락하셨습니다(누가복음 19:33-34, 마가복음 1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2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막 11:2,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horse)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러신 것입니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14-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온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무력의 왕”으로(호크마) 오셔서[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음(요 6:15, 현대인의 성경)]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길[정치적 해방(political freedom)(김세윤)] 간절히 기대하였을 것입니다[메시아적 기대(Messianic expectat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로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12:12-1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

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으로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정치적 해방)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해 주소서”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공의를 가져다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의로우신(눅 9:9) “왕 중의 왕”(딤후 6:15, 공동번역) 또는 “왕들의 왕”(계 17:14; 19:16, 현대인의 성경)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주시고(시 130:8, 현대인의 성경; 눅 24:47, 새 번역; 행 10:43)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롬 6:23,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요한복음 1:29) 유월절 어린 양(대하 35:1, 6; 눅 22:7, 현대인의 성경)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빌 2:8).

(2)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하고 말씀하신 후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 줄 것이다”(막 11:2-3,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주님께 쓰임받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와 거짓 선지자 발람이 탔던 “나귀”(민 22:21)와 비교하여 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 글의 제목은 “나귀(짐승)처럼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나요?”입니다:

(a)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본 “나귀”를 발람은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민 22:23, 29). 나귀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채찍으로 세 번이나 맞으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었지만(23-27절) 발람은 일생 동안 자기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었던(30절) 나귀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29절). 발람은 자기 나귀(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마 21:7-10).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발람의 나귀처럼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으신(사 53:7, 현대인의 성경)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발람이 탄 나귀와 예수님이 타신 나귀처럼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하고 묻자(마태 복음 19:2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28절, 현대인의 성경). 또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누가복음 18:29)]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 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마가복음 10:29-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1)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마 19:27, 현대인의 성경)하고 질문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구원)을 얻고자 한 반면에(16절,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우리”(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27절,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막 10:30,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주관자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또한 매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시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셨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게 된다”(빌리 그래함, 인터넷).

(2)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많은 재산(22절, 현대인의 성경)을 버리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 버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29절; 눅 18:29) “모든 것” 즉,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고(막 10:29, 현대인의 성경)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재산인 “집”과 “논밭”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식구들(“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욕구나 생존의 터전 및 자신들의 친족

과 옛 생활까지 모두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좇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마 4:20, 22; 9:9; 눅 5:11) (호크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식구나 재산 등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과 그 따름에 목적이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2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 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가복음 10:30)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 “내세”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 그분의 심판의 모든 절차를 보좌하고 대행할 것입니다(호크만).

(b) “현세”에 관점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마 19:29, 현대인의 성경) 박해도 “견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마가복음 10:30). 여기서 “견하여”란 단어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갑절의 상을 받으면서 견하여 박해도 받습니다.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막 10:29-3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앙적 우월감에 잠긴 제자들[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음(눅 22:24)]을 경계하신 것입니다(호크마). 이 종말론적인 원리는 현세적 원리와는 상반되며, 하나님의 순서와 인간의 순서와는 모순됩니다(호크마). 신앙적 우월감에

잠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앞선 사람”[“먼저 된 자”(개역개정)]이 되는 것을 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뒤떨어졌지만[“나중 된 자”(개역개정)] “앞서게 될 사람”[“먼저 될 자”(개역개정)]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가복음 15:39)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a) 여기서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의 일을 맡았던 이방 로마 관리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그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습니다(막 15:44)(참고: 호크마).

(b)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숨지심”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i)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막 15:37)하고 기록하였고, 마태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마 27:50)하고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하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백부장이 목격한 예수님의 숨지심은 …

-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막 15:37)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마 27:50): “다 이루었다”(요 19:30)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마27:54)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백부장이 목격한 예수님의 숨지심(죽으심)은 흑암과 지진과 예수님의 부르짖음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호크마).

(c) 그리했을 때 백부장은 고백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눅 23:47).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인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진실로(또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과 의인이었도다’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 중에 “우리(두 행악자들)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1)하고 말한 행악자로 하여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2-43절)하고 말씀하시사 그 행악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숨지심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또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과 의인이었도다’하고 신앙 고백을 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구원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i) 여기서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1)하는 말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47절)한 말의 공통점은 그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참고: 호크마). 즉, 그 두 사람 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의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 마가와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반면 누가는 “의인”이라고 고백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을 주로 염두해 두고 “의인”이라는 법정 용어가 이방인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져 그리 기록한 것 같습니다(호크마).

(2) 비록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숨지심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여 믿게 되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로우신 분(의인)으로 신앙 고백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a) 그리고 우리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

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3절) 못 박힌 손 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 (b)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한명이라도 실 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마가복음 9:42, 현대인의 성경)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한 명이 귀합니다[“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막 9:4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승리장로교회에 고성민 어린 아이와 조 단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의 7가지 기도 제목 중 5번째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없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마 18:10, 현대인의 성경).
- (2)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막 9:42, 현대인의 성경)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41절, 현대인의 성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래 전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 시절에 지금의 승리장로교회 건물 안에서(남녀 화장실 앞 복도에서) 교회 어린 아이 한 명을 혼내서 울게 만들었던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어린 아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용서를 구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장성하여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때 즉시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늦게 제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3)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하나를 죄 짓게[“실족하게”(개역개정)]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막 9:42,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큰 맷돌짝”[“연자맷돌”(개역개정)]은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회전형 맷돌로서 곡식을 뿔는데 사용하였고 손으로 돌리는 맷돌에 비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자맷돌”[“큰 맷돌짝”(현대인의 성경)]은 한 가

운데 구멍을 뚫은, 멧돌의 윗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멧돌을 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고대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실제로 시행되던 사형법의 일종으로, 극악한 범죄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자들이게 가해졌다고 합니다(호크마, 눅 17:2).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2절)를 실족케하는 죄는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참고: 호크마). 그런데 저는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실족케하는 매우 크고 심각한 죄를 수없이 하나님과 그 3자녀들에게 범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으며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도 흑시나 제가 그들의 마음이 쓰라림(bitterness)이나 원망(resentment)을 준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과(apology)를 하였는데 딜런은 제가 그에게 잘못한 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입은 아빠입니다.

- (4)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현대인의 성경) “죄 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한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므로(forsaken by God)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forgiven by God)!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가복음 15:33-34)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막 15:33)하는 개역개정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하고 번역하였습니다. 누가는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눅 23:44)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셨을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셨던 시간은 오전 9시경부터(막 15:25, 현대인의 성경) 오후 3시경까지(34절,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무려 약 6시간 동안이나 찢어지는 듯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어두움보다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34절)를 맛보시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호크마).

- (i) 무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었다는 것은 적어도 3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호크마): (1)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마 26:24; 사 5:30), (2)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보임, (3) 전우주적 통치자의 고뇌에 찬 죽음에 대한 자연계의 순응(롬 8:22).

- (2)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4; 참고: 마 27:46)하는 말씀은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외치신 일곱 마디 말씀(가상 칠언) 중 오직 이 한 말씀(막 15:34)만 기록해 놓았습니다(참고: 호크마).

(a)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는 가상 칠언(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하신 일곱 말씀) 중 네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1)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2)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3)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6-27), (4)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 마 27:46), (5)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요 19:28), (6)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요 19:30), 그리고 (7)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b) 가상 칠언 중 이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당신의 찢어지는 듯한 영적 절망감을 예언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호크마): “내 하나님 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i) 실로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데 대한 절대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적 심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점(고후:5), (2)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점(빌 2:6-8), (3)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도 무서운 것인가라는 점, (4)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만(눅 23:46)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호크마).

(3)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김창세):

(a) 첫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를 보면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음(마 6:9; 눅 11:2).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ii) (합 1:13상)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현대인의 성경)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 (iii)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에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죄악을 차마 보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으시며,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가차 없이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가차 없이 내리시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 3:17)까지 십자가상에서 버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 (b) 둘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죄의 값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 (i) 창세기 2장 16-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 (ii)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3:6)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 (iii) 예수님께서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개역한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 여기서 “한 푼”이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화폐 중에 단위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개역한글에는 “호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호리”란 사분의 일 앳사리온(1 앳사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16정도에 불

과)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인터넷)[지금 미국으로 말하자면 1 센트(cent)임].

-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빛진 자가 다 갚고도 단 한 푼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진 자가 마지막 빛 한 푼까지도 모두 지불한다는 것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이기에 빛을 다 갚기까지 형벌을 면키 심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최종적인 유죄 선고를 나타내 줍니다(인터넷).
- 이 세상에 많은 감옥에서는 빛을 갚고 또 갚고 다 갚다가 돈 1센트(cent)를 못 갚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감옥(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1센트(cent)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아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 예를 들어, 머리털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머리털 끝 한 부분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큼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한 푼의 죄요 1 cent의 죄요, 머리털 끝 한 부분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c) 셋째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 (i) 여기서 예언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이 시편 22편의 표제(머리말)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침의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 보른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노래라기보다는 예언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22편 1절 말씀[“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므로 성취가 되었음] 외에도 또 한 예로 18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24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갓에 나눠 각각 한 갓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d)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즉 한 푼(1 센트)같은 죄나 보이지 않는 죄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신 것입니다.

(i) (사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영혼의 수고를 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것을 신약

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만족히 여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큰 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한 톨 같은 죄까지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므로(forsaken by God)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forgiven by God)는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 찬양 경배를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던져진 사악한 두 질문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현대인의 성경)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마가복음 14:61-62)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하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눅 22:66-67)하고 기록하였습니다.

(a)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와 (2) ‘네가 그리스도냐?’ 이 두 질문을 마태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마 26:57)가 예수님에게 던졌다(63절)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책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판 자는 가롯 유다였지만 율법의 교묘한 율가미와 교권주의자들의 사악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처형할 합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실로 가야바는 이 적나라한 질문을 통해 율법적으로는 신성 모독의 범죄를 찾고자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반란 음모죄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호크마).

(i) 이렇게 가야바가 예수님을 처형할 합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모여 예수님을 흥계로(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했기 때문입니다(마 26:3-4; 막 14: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던 것입니다(막 14:55).

- 여기서 “흉계”는 속임수, 교활함 또는 배신의 존재나 행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미묘하고 종종 숨겨진 조작을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11번 사용되며, 자연적인 마음의 구부러진 계획과 구속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투명한 의로움 사이의 명확한 대조를 그립니다(인터넷).

- 마태복음 26장 4절과 마가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을 “교활하게” (δολω) 붙잡으려는 음모자들의 계획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구속을 공개적으로 이루고 계신 바로 그 시간에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은밀하고 속임수에 의한 전술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은 속임수를 타락한 인류의 내면에서 나오는 마음의 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신학적 의미(인터넷):

- 성품의 계시: 속임수는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그 안에는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약 1:17).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은 뱀, 즉 “거짓의 아버지” (요 8:44)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론적 순수성: 예수님의 결점 없는 진실성은 그분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증명하며, 그분을 흠 없는 제물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 교회적 청렴성: 사도적 사역은 조작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직설적인 방식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진정한 선포는 정직에 의해 좌우됩니다.

- 도덕적 변화: 종생은 “각각 이웃과 진리를 말하는”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엡 4:25). 그러므로 속임수는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을 부정하는 실존적인 부정입니다.

(ii) 대제사장 가야바가 던진 질문 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은 '네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이며, '네가 그리스도냐?'는 물음은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지니고 온 메시아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구약 시대 이래로 메시아를 대망해 온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결국 그 질문으로써 예수

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64절)(호크마).

-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의 의미를 묵상할 때 빌립보서 2장 6-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신성모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33절).
-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의 의미를 묵상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마 16:16)],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후 1:15,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신 바(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히 9:28, 현대인의 성경).
-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를 대망해온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방)시켜주시고,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해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김세윤). 한 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은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가, 마태, 요한은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명절의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지만(마가복음 15:8-11; 마태복음 27:15-21; 요한복음 18:39-40) 누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군중에게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누가복음 23:4)하는 말씀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억지를 부리며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쳐댔다”](5절)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게 되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말씀(6-15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들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누가복음 23장 6-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눅 23:6-7)하는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촌놈이라는 뜻을 내포한 경멸적 표현입니다(I. H. Marshall, 호크마). 아마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는 말에 예수님이 시골에서 올라온 별것 아닌 청년쯤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대한 듯합니다(호크마).

(a) 그리고 그는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 아래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함으로 쉽게 자신이 난처함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호크마).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빌라도는 헤롯의 관할 사건을 자신이 처리함으로써 헤롯을 소외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호크마).

(i) 헤롯은 B.C.4-A.D.39까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안티파스(Antipas)를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빌라도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호크마).

-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다. 즉, 그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호크마).

- (2)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 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눅 23:8-9,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에서 헤롯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아마도 누가복음 9장 7-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참고: 호크마).

- (a) 이 때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던 헤롯은(7절, 현대인의 성경)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문에 들은대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23:8하, 호크마).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 재주를 공연하게 했다. 헤롯 또한 이런 류의 호기심을 갖고서 예수를 마술사 내지는 특출한 재주꾼으로 취급하였던 것 같다. 그는 예수로부터 심심풀이용 오락과 유흥을 기대했을 뿐 영적인 은혜나 심오한 사상 등에 대한 진지한 소원은 전혀 결여한 상태였다”(호크마).

- (i)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의 심문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헤롯의 많은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해석이나(J. Jeremias) 정직한 질문이 아닐 때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원칙이 복음서 안에서 일관되고 있다는 주장(Hooker)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헤롯의 입을 통해 쏟아지는 수다스러운 질문의 홍수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조용하고 위엄있는 침묵으로 맞서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빌라도나 헤롯, 그리고 고소자들의 언행에 대해 대답할 가치조차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호크마).

- (3)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눅 23:10)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빌라도 총독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4절)하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세게 불복하였던 것처럼 헤롯의 심문 과정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강력하게 정죄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호크마). 그들은 헤롯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과 또 빌라도의 심문이 그들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한 상태에서 헤롯마저 그러하자 온갖 허위 사실들을 총 동원하여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던 것입니다(호크마).

(4)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 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눅 23:11-1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보면 헤롯의 여러 가지 질문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헤롯과 군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냄을 받으셨습니다.

(a)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갈 6:7)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눅 23:11). 또한 예수님은 조롱까지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i)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아들인 이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음(인터넷)]과 빌라도[로마 황제로부터 파송 받은 총독(인터넷)]가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편 2편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현대인의 성경)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 원수로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그들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눅 23:11,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이나 말해 놓고서도(14, 15, 22절) 결국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므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23-25절, 현대인의 성경).

(5)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눅 23:14-15)하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또 다시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소자들이 고발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다시 “사실 이 사람(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매질하여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i)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히 4:15, 현대인의 성경)]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 때문입니다.

- “...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롬 8:3,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믿음의 여인들은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마가복음 15:40-41)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55-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48-49절 말씀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먼저 누가복음 23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경하러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들었지만 너무도 참혹한 예수님이 모습과 형 집행 과정에서 되어진 여러 사건들을 목격하고는 저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아들이 예수께 대항하며 소리쳤던 전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양심이 심하게 아팠음은 분명합니다(호크마).

(i) 우리는 이 장면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시의 상황과 연결시켜볼 수 있습니다(행 2:22-24).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23절)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마음에 찢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37절)하며 회개의 길로 돌아섰던 것입니다(호크마).

-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했을 때(고전 11:2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찢려 양심이 심하게 아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쩌면 회개의 길로 돌아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마 27:55)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56절)인 살로메(막 15:40)가 있었는데 그녀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쓸 것을 돕고 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눅 8:2-3)(호크마).

(i) 예수님이 체포되자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달아났고(마 26:57), 특히 가장 열심히 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69-75절). 그런 와중에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님의 쓸 것을 돕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눅 8:2, 3)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동참했으며 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처절한 예수님의 최후를 타는 가슴으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숨은 봉사자들이었으며 예수의 생과 사의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호크마).

-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믿음의 여인들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6)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15절, 현대인의 성경)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a)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b)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16절).

(a) 여기서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인지 믿고 세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i)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해지는 의식으로, 죄 씻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물을 이용한 예식으로,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터넷).

- 여기서 “세례”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를 넘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 씻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인터넷).

(b) 여기서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죄”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넘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인터넷).

(i) 신학적 의미(Theological Significance)(인터넷):

- 대속: 그리스도께서 사법적 정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이 사법적 의를 받을 수 있게 하심(이사야 53장 예언, 롬 8:1 암시).
- 종말론: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니느웨와 소돔의 증언이 심판을 확증하듯, 끊임없는 불신앙에는 최종적 정죄가 반드시 따름.
- 성화: 믿는 자들은 종말론적 정죄를 피하게 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거룩함이 자라남 (히 12:5-11, 고전 11:32).
- 확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중보(롬 8:34)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장래의 정죄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

(ii) 결론: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권리를 가지시며, 그분은 이미 자신의 아들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고, 마지막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이미 지나갔고, 반역하는 세상에는 정죄가 임박해 있으며, 교회에는 그것이 경고이자 확신으로 작용하여 의로운 삶과 뜨거운 사명을 굳게 붙드는 근거가 됩니다(인터넷).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 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마가복음 9:38-4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1)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요한의 말(막 9:38,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배척”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로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배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우리” 그룹이 서로간에 매우 친밀하면 더욱더 그 “우리” 외에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들끼리의 친밀함이 그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포용력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그 “우리” 그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자신의 친밀함에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서 그 “우리”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결핍되고 있고 서로 다르다고 마음 속으로라도 무시할 수 있으며 자기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마음 속으로라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약 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시는데(롬 2:11, 현대인의 성경; 참고: 행 10:34; 골 3:2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나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

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 (2)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막 9:39-40,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막지 말아라”[“금하지 말라”(개역개정)]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38절, 현대인의 성경)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39절, 현대인의 성경)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비록 요한과 다른 제자들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호크마). 그 이유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0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요 언젠가는 우리의 편이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호크마).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믿고 그 상대방을 배척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 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

“그때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마가복음 14:10-11,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가롯 유다”란 인물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1) “가롯 유다”란 인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요 6:64),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13:11),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12:4-6), “...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누가복음6:16),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눅 22:3-5),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한복음 1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26-27절),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마가복음14:10),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요한복음 1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요 6:70-71),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막 14:10-11), “...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마태복음10:4),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마가복음3:19),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마 26:24-25),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46절), “대답하되 나 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요 18:5),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지라”(마 26:48-50),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누가복음22:47-48),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마 27:3-5).

(a)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저는 가롯 유다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였습니다(요 6:64), (2) 그는 도둑이었습니다(12:4), (3)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13:27), (4) 그는 마귀였습니다(6:70), (5) 그는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마 10:4; 막 3:19), (6)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줄 것을 뺀 사람이었습니다(마태복음26:24), (7)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48, 49절), (8)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27:3, 5).

(i)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마귀 같은 불신자는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으로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기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줄 것을 뺀 사람입니다.

-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참고: 마 26:50) 여기서 “친구”라는 헬라어 단어 “hetaíros”는 동료인 척하는 사람(보통은 사기꾼)으로, 겉으로는 동지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가짜입니다(인터넷).

- 예수님은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가롯 유다는 ‘가짜 친구’이고(마 26:50),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사 41:8, 현대인의 성경)]과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 11:11)]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2)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이십니다!

(a)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3-15).

(i) 예수님의 진짜친구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참고: 요 15:1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12절).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마태복음 22:37, 39).

(3) 21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A. W. 토저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 장이 나옵니다.

(a) 그 장에서 토저 목사님은 진짜 크리스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기 발견을 위한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i)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ii)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iii)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 (iv)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 (v)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 (vi)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 (vii)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b) 이 질문을 던진 후, 토저 목사님은 「누가 가짜인가?」에 대해 8가지로 말합니다:

- (i)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한다.
- (ii)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아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 (iii)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 (iv) 가짜는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v)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는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 (vi)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
- (vii) 가짜는 감정을 등한시 여긴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 (viii)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진리는 새와 같이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쏘서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가복음 10:32-3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려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은 왜 "앞장서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신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길(중생의 길)이요 또한 영원히 살리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 (2)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던 것일까요? 혹시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담대히 앞장서서 걸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혹시 자기 자신들의 위험에 사로잡혀 스스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무한한 위험 속에 뛰어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하였다. 그들의 선생과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산헤드린 대법원 법관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여도 겁이나 떨리었다"(메튜 헨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마가복음 11:24, 현대인의 성경)[(마태복음 21:22,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1)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막 11:24, 현대인의 성경)[(마 21:22,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목사님에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배운 5가지 확신 말씀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배웠지만 제 자신의 부족한 기도 생활을 뒤돌아볼 때 복음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의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기도한대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 그 경우 중 하나는 바로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저는 제 마음 속으로라도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영이를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결국에는 제 품에서 그녀가 죽었습니다. 주영이만이었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도 살려주시길 간구했거만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4절보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복음서가 가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가 제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b) 제가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씀입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요 1:1)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십니다(계 19:1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막 11:20,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c) 저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하신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라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막 11:2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저는 약속하신 주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기에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음을 믿습니다(딤후 2:13,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고린도후서5:7).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될 것입니다(막 11:2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눅24:11, 현대인의 성경).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마가복음 16:10-11)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누가복음2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막 16:10, 현대인의 성경), 특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요 20:2, 현대인의 성경) 및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막 16:11, 현대인의 성경)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눅 24:11, 현대인의 성경).

(i) 여기서 “허튼 소리”(눅 24:11, 현대인의 성경)라는 헬라어 단어(λῆρος)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로서 사도들의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횡설수설로 여겼던 순간의 모습을 포착합니다(인터넷).

- 여성의 증언: 1세기 유대교에서 여성의 법적 증언은 종종 무시당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여성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요 20:2 참조)(인터넷).

- 의학적 함의: 고전 그리스 저자들은 열병이나 광기로 인한 혼미한 말을

ληρος(라마로스)로 사용했습니다. 의사 누가(골 4:14)는 자신에게 익숙한 의학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부활이 자연적인 추론으로는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들렸는지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인터넷).

- 그리스-로마 공명: 더 광범위한 헬레니즘 문헌에서 이 단어는 논리에 어긋나는 횡설수설을 의미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의미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불신과 빈 무덤의 신성한 실재를 대조합니다(인터넷).

(ii) 여기서 “믿지 않았다”(눅 24:11, 현대인의 성경)는 헬라어 동사(ἠπιστησαν)는 분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태도, 즉 증언이나 약속에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제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난받을 만한 태도로 묘사합니다(인터넷).

- 결국 믿음은 경험적 증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것에 마음을 여시는 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눅 24:45)(인터넷).

- 이 동사는 신약성서에 여덟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의 도덕적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구원 계획의 틀림없는 승리를 강조합니다(인터넷).

(iii)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12절, 현대인의 성경)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저는 그 원인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

하는 그 불신앙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말씀[“기쁜 소식”(18절, 현대인의 성경)]을 듣지 못하고(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분개, 우리의 분개?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분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마가복음 10:13-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1)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말씀(막 10:13,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어느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그리도 원한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리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주들도 축복해 주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막 10:16, 현대인의 성경).

(2)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부모님들이었겠지요)을 꾸짖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9장 36-37절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34절,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일까요?? (14절,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

은 사람들의 것”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참고: 마 19:13-14,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 마 18:1-4; 눅 22:24, 현대인의 성경)

(3)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분개”하셨다(막 10:14, 현대인의 성경)는 것은 제자들의 당치않는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하였고, 그들의 오는 것을 가장 반가웠는데 이런 스승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과 의분을 표하신 것이다”(호크마). 저는 이 예수님의 “분개”를 묵상할 때 마가복음 14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마 26: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야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여자가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수 있는데 그 비싼 향유를 그녀가 낭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막 14:3-5, 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녀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인데(6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하였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신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나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일’이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9:36-37,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그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았”았다는 것(10:15, 현대인의 성경)이기에 그것은 ‘나쁜 일’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분개”하실 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14-15절,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호크마 주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시민의 성품인 것이다. 어린이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나 중요한 것은 순결과 겸손과 신뢰(신앙)일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성품인 것이다”(호크마). 제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인”이란 제목아래 쓴 짧은 말씀 묵상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마 11:25)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벧전 2:2)인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3절).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3).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인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요한복음 12:3)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마가복음 14:3, 현대인의 성경), 곧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그램(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가복음 14:3; 마태복음 26: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요한복음 12: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마가복음 14:4-5, 현대인의 성경).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였습니다(요한복음 12:4, 현대인의 성경).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마가복음 14: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막 14:3, 현대인의 성경)인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요 12:3)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막 14:3, 현대인의 성경), 곧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그램(요 12:3,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막 14:3; 마 26:7,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요 12:3,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

(a) 여기서 “베다니”(Holy Land)란 “슬픔의 집”이란 뜻으로써 예루살렘 동쪽 약 4km 지점에 있었고, 지금도 나사로 동네라고 부르며(막 11:1; 눅 19:20)(다국어 성경)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요 12:1).

(b)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말씀(막 14:3, 현대인의 성경)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고침을 받은 시몬이 그 답례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요 12:2, 현대인의 성경)를 마련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대접받으셨던 것입니다(호크마).

(i) “따라서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더이상 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울 때마다, 예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호크마).

- 누가복음 17장 11-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문둥병자 열 사람이 예수님께 문둥병을 치유 받았지만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 병이 아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c) “한 여자”인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막 14:3,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나아드” 향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휘발성이 강한 향인데,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하신 분에게 바쳐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호크마).

(i) 요한복음에 의하면 향유 한 병의 가격이 '300 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300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소득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호크마).

-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히 존경했으며,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는 봉사를 한 것입니다(요한복음12:3, 호크마).

(d)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가사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2x).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 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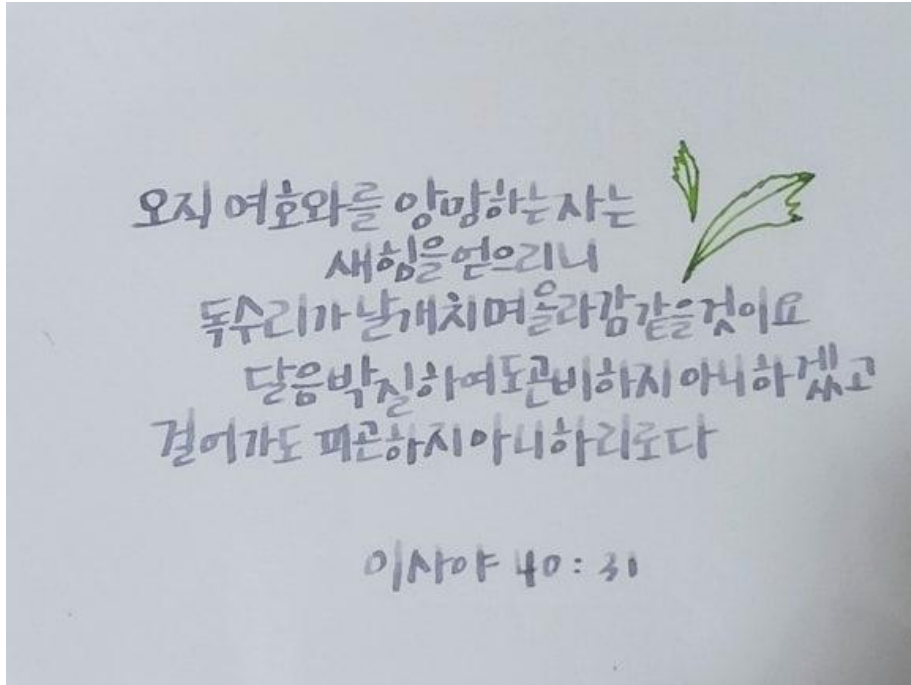
(e)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가사입니다:

- (1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2절)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취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3절)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싸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자체가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감탄한 회당 안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1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물 받은 4개의 성경구절들이 적혀있는 말씀 카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열어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묵상합니다:

- (1) 저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습니다.
- (2) 특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좀 뼈저리게 느껴서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싶습니다.
- (3)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오히려 더욱 일으킴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시편18:1, 히브리어)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자기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 일까요? 왜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0:2-9).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간교한 생각”을 가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외식하는 자들은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시험하여 어떻게 해서든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였습니다(막 10:2, 현대인의 성경). 호크마에 의하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시험한 목적을 한 3가지로 추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주의자보다 차원 높은 도덕을 가리켰으므로(마 5:27 - 32)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어서, (2) 이와 같은 논쟁에 예수를 끌어내어 어느 편에 가담시키려고, (3) 당시 헤롯이 이혼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를 반대하다가 죽었으므로 예수를 같은 운명에 빠뜨리기 위해서 등으로”(호크마). 여기서 두번째 추론에 과한 추가 설명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2절(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의 해석에서 대립되는 논쟁을 계속하였다. 엄격파인 샴마이파는 위의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고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였고, 자유적인 힐레파는 무슨 조건이든(가령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고”고 합니다(호크마). 저는 이 3가지 추론 중에 세번째 추론이 흥미롭고 또한 설

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마 12:14)].

(3)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았다[“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이다(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는데(막 10:4-5) 이 마음의 완악함이란 완고한 마음으로서 어린아이와(9:36) 대조적으로 감수성이 없는 굳어진 마음입니다(호크마). 이렇게 차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참고: 슥 7:12, 새번역).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주님의 길에서 떠납니다(참고: 사 63:17, 새번역).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십니다(참고: 막 3:5, 새번역).

(4)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막 10:6,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지금은 남자와 여자 외에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지금 성전환이란 것까지 생겨난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5)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막 10:7-8,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자기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와 그녀의 부모는 왜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없기에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도 믿음이 없어서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6)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막 10:9,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갈라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짝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유월절”이란 명절에 강도 바라바는 석방시키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앞이러라”(마가복음 15:6-10)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막 15:6)하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요 18:39).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백성들이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 유월절 사면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호크마).

(a) 그 이유는 적어도 3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눅 23:4, 14, 22. 현대인의 성경), (2)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막 15:10, 현대인의 성경). (3)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마 27:19, 현대인의 성경).

(2)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고 마태는 기록하였고(마 27:20, 현대인의 성경), 마가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막 15:11,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충동하고 설득하여 유월절의 전례대로 빌라도 총

독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막15:8, 현대인의 성경)케 하였는데 그 죄수는 바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였고(7절, 현대인의 성경), 빌라도 총독 무죄판결을 세 번이나 받으신 죄가 없으실뿐만 아니라(히 4:15, 현대인의 성경)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고후 5:21, 현대인의 성경)은 죽이라고 요구케 하였습니다(마 27:20, 현대인의 성경).

(i) 여기서 “총동”은 바로 사단의 전략(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과 그의 종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산헤드린)은 군중들을 적극적으로 총동하여 살인죄를 범한 죄수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케 하고 죄가 없으실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 지르게 하였습니다(막 15:13, 현대인의 성경).

- 사도행전 14장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고니온에 가서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하여 결국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하였습니다(5절). 여기서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를 보면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하고 적혀 있습니다(2절). 즉,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넣어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 지금도 뭔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그저 추측 가운데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장을 피므로 결국 주위 사람들을 총동하여 자기편을 만들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28절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자꾸만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총동시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충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부각시키며 총동질하여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총동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간교한 뱀이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하는 소리를 자꾸만 들려주면서 아담을 총동질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행사하

도록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며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힘과 궤와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복을 쟁취해 나가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이 사탄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그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주장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피면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충동질이 아닌 학개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ii)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충동하고 설득하여 유월절의 전례대로 빌라도 총독에게 살인죄를 범한 “강도”(요 18:40) 바라바는 석방시키라고 요구케하고 예수님 죽이라고 요구케한 사실(마 27:20, 현대인의 성경)이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월절”이란 명절에 (요 18:39)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설득당한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는 석방시키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마27:20-22, 현대인의 성경)

- 유월절이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Pesach)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구원과 자유를 상징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인터넷).
- 이 유월절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요 18:39, 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충동하고 설득하여(마 27:20; 막 15:11, 현대인의 성경)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었던 죄수인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외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쳤습니다(눅 23:18-19, 21,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석방되었어야 할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었고 십자가에 못박혀야 할 죄수는 살인자였던 바라바였는데 왜 정반대로 된 것일까요?

- 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죽으심으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며(자유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마가복음 15:46-47)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7장 59-6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왔더라.” 누가복음 23장 53-56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한복음 19장 39-42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a)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먼저 마가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막 15:46상)라고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마 27:59)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눅 23:53상)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요 19:39-40)라고 기록하였습니다.

(i)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한 후(막 15:44-45) “아리마대 사람 요셉”(43절)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을 때(45절)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는데(46절) 이것은 요셉 혼자서 할 수 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 생각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옮

겨가기 위해서는 우선 땅에 박힌 십자가를 뽑아 뉘운 다음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어야 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는 채비를 갖추어야 했으며 이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 혼자서 옮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 호크마).

- (ii)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막 15:46)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시체를 싸려고 “깨끗한 세마포”[“깨끗한 모시 천”(현대인의 성경)(마 27:59)]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 고운 베옷, 가는 베, 아마포”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가는 베인 세마포는 애굽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서(겔 27:7)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습니다(출 39:270-29; 삼상 2:18; 22:18; 단 10:5). 가는 베로는 제사장들의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제사장들의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고 고의를 만들었습니다(출 39:27-29). 사무엘은 이 세마포로 만든 예봇을 어릴 때부터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삼상 2:18). 또 세마포는 부자들이나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였는데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창 41:42). 성막의 울타리 휘장 재료로도 쓰였습니다(출 27:9). 헬라어 “신돈”(sindon)이 세마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시체를 싼 천이었습니다(마 27:59). 이 세마포는 요한계 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곳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계 19:8). 또한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14절)(인터넷).

- 유대 장례법은 시체에 세마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목적은 죽은 자를 기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식상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인터넷).

- (iii)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고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킬로그램 정도 가지고 와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모시 천)으로 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9:38하-40, 현대인의 성경).

- 니고데모의 십자가에서의 용기 (요 19:38-4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약 30킬로그램”(39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양은 일반적인 장례 관습을 뛰어넘는 것으로, 왕족의 예우에 버금가는 것이었으며, 니고데모의 전적인 충성을 상징했습니다. 처형된 “신성모독자”와 공개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회당에서 추방당하

고 정치적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니고데모의 믿음은 이제 값비싼 헌신으로 표현됩니다(인터넷).

- 예언의 성취: 그의 호화로운 장례 향신료는 이사야가 묘사한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사 53:9)를 우연히 실현시켰습니다(인터넷).

(b)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마가는 세마포에 쓴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은매”(막 15:46)라고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마 27:60)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눅 23:53)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요 19:41)하고 기록하였습니다.

- (i)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 안에 바위 속에 판 요셉의 새 무덤(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그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무덤”(μνημεῖον)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죽음의 포위와 부활의 삶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인터넷):

1. 나사로: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시니 무덤은 굴이요 입구는 돌로 막혀 있더라"(요 11:38).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를 예고합니다.
2. 동산 무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는 새 무덤이 있더라"(요 19:41). 이 배경은 에덴을 떠올리게 하며 새 창조 신학을 암시합니다.
3. 목격자 순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나아가... 몸을 굽혀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요 20:3-6). 반복적인 언급은 역사적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c) 이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마가는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

수님의 시체를 넣어 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막 15:47, 현대인의 성경)하고 기록하였고, 마태는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마 27:61)하고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셔 두었는가를 봐 두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눅 23:55-56, 현대인의 성경)라고 기록하였습니다.

(i)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무덤 맞은편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마 27:56)(호크마)]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후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억지로 참으며, 예수님의 장사를 조용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처형과 매장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들의 권위가 무시당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증거는 참으로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매장 장소에 두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또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지녔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 내지는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3:1; 히 10:28) (호크마).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마가복음 11:25-2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막 11:22)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후 (23-24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26절에서는 ‘이웃을 용서한 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중 계명이 생각났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39절).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a)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제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마음을 다하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생명을 걸고(“목숨을 다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특히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막 14:36, 현대인의 성경).

(b)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저와 제 이웃과의 관계(수평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제가 제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제 이웃을 용서한 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막 11:25,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반영하고 적용해 볼 때 만일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하고 다투었음으로 서로 마음이 상해있다면 제가 제 아내를 먼저 용서하고 또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여 서로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 아내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잘못”(“허물”)(막 11:25)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26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예수님의 이중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실제로 제일 가까운 이웃인 제 아내조차도 용서하지 않고(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서로 화해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이중 계명의 두 번째 계명대로 제가 제 이웃(제 아내)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c)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만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습니다(유진 피터슨).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형제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마 18:23-35, 현대인의 성경).

(e)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딤후 3:1, 3,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지금 이 말세에 가정에서조차도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 (f) 수 없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는 것은 아닌지요(마 6:12, 현대인의 성경).
- (g)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죽기까지 용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This Age)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말하지만,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속한(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용서합니다(눅 23:34; 고전 15:40, 48, 49; 빌 3:20; 요일 5:19).
- (h) 배우자 용서하기 (2) (마 6:14-15):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하고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므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마다 판단하고(마음으로라도) 비판하며 심지어 정죄까지 하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자기 배우자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를 배우자에게서 받는 상배 배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 등이 계속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향해 폭파할 것이고 그들의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i) 배우자 용서하기 (3) (막 8:34; 눅 11:4):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5).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하다(I am sorry)’라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I am

wrong)’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되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이기적이라 내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이 더 크고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기를 더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죄악된 이기적인 본능과 싸워 이겨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값을 치뤄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 8:34). 그러나 이렇게 큰 값을 치루어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수확은 아름답습니다. 내 배우자가 큰 값을 치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상대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엡 4:32).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 11:4).

- (j)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되(마 20:28; 빌 2:8)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눅 23:34).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가족을 죽기까지 섬기되 특히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 식구를 위해 죽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외식과 가식을 ...

우리 자신의 외식과 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특히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과 악자들에게서 탈취하는 것과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참고: 막 12:38-4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9:40,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제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9:4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 (1)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분부하신 것으로서 그것은 제물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제물이나 고기는 소금이 없이는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제를 드릴 때에 더욱 그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레 11:13)(멘튜 헨리).
- (2)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선(롬 12:1) 우리의 부패한 “육체”(창 6:3; 시 78:39)에 “소금치듯 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제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는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막 9:40, 현대인의 성경).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믿음직하게 됩니다(헨리).
- (3) 새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그리고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1절과 후렴 가사도 생각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 (4) 시편 51편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
- (5) 다니엘 11장 3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 1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 (6) 에스겔 37장 2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상들과 더러운 물건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마가복음 11:22-2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막 11:2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현대인의 성경]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6:29,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막 11:22, 현대인의 성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요한복음 5:24, 현대인의 성경).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막 11:23, 현대인의 성경)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 속으로 던지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은 부정적으로 의심없이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호크마).

(a) 먼저 예수님은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으로 의심한다

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 속으로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의 한 쪽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약 1:8).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는 이중 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4: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겔 11:19), 즉 ‘나뉘지 않는 마음’(undivided heart)을 주시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b)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롬 14:23, 현대인의 성경). 잠언 3장 4-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이사야5:21).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롬 4: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20-2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하고 따져 물었을 때(마가복음11:2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대답 대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내용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여행으로 가 있다가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해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갇은 모옥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마가복음12:1-9; 마태복음21:33-41; 누가복음20:9-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1)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 내용 중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여행으로 가 있다가 소출 때가 되자 소출에서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다(막 12:1-2; 마 21:33-34; 눅 20:9-1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

(a) 당시에는 팔레스틴 본토에 토지를 소유하고서 외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혹은 로마인으로 팔레스틴에 땅을 사둔 자들도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부재 지주로 인한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고 합니다(호크마).

(i)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ii)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별의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닦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건강한 교회는 주님 중심된 교회이지 담임 목사 중심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닦아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참고: 마 16:18).

(b) 그 집주인이 모든 설비를 구비해 놓고 가꾸던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오랫동안 떠난 것으로 보아 그 집주인은 그 농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호크마).

(i)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ii)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린도전서4:2)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냐?”(마태복음24:45, 현대인의 성경),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잠언20:6, 현대인의 성경)하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ii) 사도 바울의 이고백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딤후 1:12, 현대인의 성경).

(iv) 잠언 3장 5절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사 26:4).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30:15, 새 번역).

(c) 그 집주인이 세를 주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다만 성도는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 내지는 종의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호크마).

- (i) 우리는 모든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ii) 복음서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생각납니다: (1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2절)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3절)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후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 (iii)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청지기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시편 116편 15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참고: 열왕기상8:53; 열왕기하9:36, 새 번역)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참고: 신명기34:5; 여호수아1:1, 새 번역).
 - 우리는 주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참고: 누가복음12:42).
 -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베드로전서4:10).
 - 주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보던 일을 셈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참고: 눅 16:1-2).
- (d) 그 집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그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그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맡은 바 사명을 추구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말입니다(호크마).
- (i)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 (ii)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능동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 (iii) 사도행전 20장 2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이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유혹)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마가복음 12:12-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22절과 누가복음 20장 19-2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오늘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하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 12:15,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의 위선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막 12:15, 현대인의 성경). 그 시험 질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였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a) 여기서 “시험”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시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이는 사람의 품질이나 신실함을 조사하는 긍정적인 시험과,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부정적인 시험을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동사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여 그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이나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죄짓게 유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i)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시험은 교육, 군사, 철학의 맥락에서 흔한 개념이었습니다. 시험은 개인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

졌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 신앙을 정련하고 정화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험을 성장의 신성한 도구이자 죄의 함정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인터넷).

- 예를 들어, “시험”의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창 22:1)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2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히 11:17, 현대인의 성경).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19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 예를 들어, “시험”의 부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마 4:1). 예수님께서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현대인의 성경은 “성경에는”)(4, 7, 10절)하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마귀의 종들인 (1) “지나가던 사람들”과 (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3) 예수님과 함께 못박힌 두 “강도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22:39, 41, 44). 그 시험이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보러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참고: (40절, 현대인의 성경)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42절, 현대인의 성경)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말고 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b)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2-17절 맥락을 보면 “시험”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탄의 악한 세력이요 위선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자 꾀이나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로마황제에

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하고 물었던 것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참고: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그들이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고(8:11, 현대인의 성경) 또 다른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10:2, 현대인의 성경)하는 질문을 받으셨음]. 이 질문에 대하여 호크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지금 예수는 궁지에 빠졌다.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당원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호크마).

(i) 예수님은 그들의 정중하고 호의적이며, 간절한 물음 속에 있는 살의와 사악함을 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는 '외식함', 누가는 '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막 12:15; 눅 20:23). 그들의 입으로 말한 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코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다 아셨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과 덫을 바로 아셨던 것입니다(호크마).

- 우리도 사탄과 그의 세력의 함정과 덫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탄의 “시험”(유혹)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굽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구부러뜨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그 거짓은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시련)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옴기에 나오는 옴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옴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옴기1:22). 오히려 우리는 옴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23:10)는 믿음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옴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42:5).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마가복음 14:27-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28절; 마태복음 26:32,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하신 말씀대로 죽음에서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요 20:9)[참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하신 말씀(막 14:28; 마 26:32, 현대인의 성경)을 깨닫지 못했음].

(a)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안식일 다음 날(일요일/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자들”(눅 24:1)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10절, 현대인의 성경)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이기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3-4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 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5-7, 현대인의 성경). 그제서야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8절).

(i)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 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마 27:63-64, 현대인의 성경).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을까요?

(b)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 그 말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13, 16절, 현대인의 성경)].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성경(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인들은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고 있을 것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이사야22:13).

- 마태복음24장 37-39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2) 우리는 전해 들은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딤후 2:8).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롬 6:9, 현대인의 성경).

(a)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살전 4:14, 현대인의 성경).

(i)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고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고전 15:52, 현대인의 성경):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42-44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요한계시록22:20).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마가복음13:31, 현대인의 성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32, 3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33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35, 37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36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한계시록22:20)하고 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참고: 누가복음1:17,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악점을 책잡아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마가복음 12:12-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5-17절과 누가복음 20장 19-2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그들로하여금 회개케하기보다(참고: 행 2:37-38)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참고: 7:54, 57-58).

(2)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막 12:13,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였다(마 22:15,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냈다(눅 20:20,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마가복음 12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구실을 붙여”라는 말씀은 개역개정에는 “책잡으려 하여”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은 “덧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호크마) 마태복음 2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는 말씀은 개역개정에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본래 사냥에 사용되는 말로서 한 대상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함정이나 덫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호크마). 누가복음 20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세심이 지켜보다가”란 말

씀은 개역개정은 “엿보다가”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은 주의깊게 몰래 지켜보는 것을 뜻하며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약점을 책잡아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 다라는 뜻입니다(호크마).

(i)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주도 면밀하게 함정(덫)을 설치하여 주의깊게 몰래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책잡아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 저는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 가 문에 엮드리느니라”는 말씀은 영어로 “sin is crouching at the door”인데 저는 이 영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오래전 본 중국 무협 영화인 “와호장룡” 이란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 제목이 영어로는 “Crouching Tiger”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 영화 제목의 "crouching"이란 단어는 마치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날카로운 손톱을 지켜 세우고 문 에 엮드려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와같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마음의 문에 항상 엮드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의 무서움 혹은 죄의 강력한 소원/원함(desire)입니다. 사실 성경은 "죄의 소원"(its desire is for you)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4:7).

- 마치 호랑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자 강하게 역사하는 죄 의 강력한 소원을 우리는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가능 할까요?

■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생각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 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또 한가지는 창세기 4장7절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란 말씀입니

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을 행하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마가복음 16:7-8)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마태복음 28장 7-8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누가복음 24장 8-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a)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이 여자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및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눅 24:10)에게 주어진 임무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7절; 9:22 참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마 28:7)는 말을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7절) 알려 주는 것(막 16:7, 현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 여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참고: 호크마).

(i) 흥미로운 점은 마태는 “그의 제자들에게”(마28:7)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눅24:9)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막16:7)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과 기록하였는데 마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유

난히 언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은 마가의 자료의 상당 부분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 열 한 제자의 무리 속에 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호크마).

- 마가는 베드로를 따로 분리시켜 그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베드로의 대표적 불신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26:69-74). 실제로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14:66-72). 그에 반해 마태는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 속에 포함시켜 말함으로써 제자들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서 고독해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해도 베드로에 대한 특별성이 언급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은 각각의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쁨이 됨을 말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호크마).

- (ii) 이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주님의 종인 저 같은 목사에게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b)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할 때 “이 여자들”(눅24:10)은 몹시 놀라 떨며(막 16:8) 예수님의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8절, 현대인의 성경)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하였습니다(마 28:8).

- (i)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사건과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몹시 놀라 떨었고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녀들의 혼란된 심리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대비시킴으로써 한편은 천사의 임재를 위시한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접하여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체험할 때 생겨나는 심리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 초자연적 사건 앞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에 없으나,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자각할 때 한없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통일되면서 인간은 진정한 신앙적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호크마).

(ii)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막16:7)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은 후 '큰 기쁨'에 차서 천사의 고지 사항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8:8). 이것은 마가와 마태의 교훈적 강조점이 다름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 마가는 예수의 측근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로마의 혹독한 탄압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날 위기에 처해있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제자들처럼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동시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제자들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평범한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태 공동체의 경우는 마가에 비해 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어두운 면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기쁨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호크마).
- 우리 승리 공동체의 경우는 어떠할까요?